

템플스테이 국고 100억 지원

문화관광부 '템플스테이' 확대방안 발표

5년간 30개 사찰에 시설 지원
 사찰고유문화 관광상품화 계획
 외국인 위한 체험프로그램 특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템플스테이'에 국고 100억원이 지원돼, 외국인들의 사찰 체험 기회가 확대된다. 문화관광부는 12월 19일 강릉도청에서 개최한 '관광 진흥대책 보고회'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민관광시대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으로 18대 과제를 선정하고 템플스테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템플스테이 지원확대와 같은 사찰 문

화 상품화 계획은 ▲숙박시설 확충 ▲고유문화 관광 상품화 ▲일본인 방한 수요 확대 ▲동남아·구미시장 개척 등 4개 과제에 포함돼 있다. 템플스테이 확대 방안은 전국 30개 사찰에 시설 보완 예산으로 향후 5년간 국고 100억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사찰 요사채를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여행사를 통해 사찰 고유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또 일본·구미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찰 탐방, 불교체험 등의 특화상품이 개발된다. 사찰 문화체험 특화상품에는 참선·예불 체험 등이 포함돼 있어 외국인들의 한국 불교 문화 체험 확대와 한국

불교 이해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8대 과제는 5년간 관광정책의 큰 틀로, 정책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문화관광부 관광정책과 정영석 사무관은 "한국 불교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전통 사찰 문화가 잘 보존돼 있어, 전통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가장 적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아직 템플스테이가 가능한 사찰이나 종단과의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4개월 가능한 한국 대표사찰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 12월 23일 연천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충효체험 한마당큰잔치.

민관군 어우러진 상생, 화합 한마당

2004년 새해를 맞아 민·관·군이 함께 어우러져 상생과 화합을 기원하는 한마당 큰잔치가 열렸다. 한국불교 지장신앙의 근본도량 심원사(주지 화급)는 12월 23일 연천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지역 기관장들과 군인, 소외된 노인 및 주민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맞이 충효사상 체험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상생과 화합 기원 전통불교 범오식에 이어 공양잔치가 열렸다. 이어 소외된 노인들과 주민들을 위한 위안공연, 지역 공공기관과 군부대원 주민들이 직접 참여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가한 2천여 주민들에게는 양말 등 선물이 전달됐으며, 연천 월원지역 소년소녀가장들에게 1천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심원사 주지 도후 스님은 "한국전쟁의 접전지인 연천 지역의 특징인 분단과 결혼 등의 아픔을 극복하고, 우리민족의 구심점인 충효사상이 구현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행사를 준비했다"며 "인간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과 불일치는 불교의 지장신앙이 그 치유대안"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달마문에 교양대학 문 연다

2004년 3월 개강, 정원 30명
 불교문에 교양대학이 문을 연다. 서울 흑석동 달마사(주지 미명)가 2004년 3월 개강할 예정인 달마문예대학은 운문반, 산문반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문예일반 및 창작지도 교과과정이 편성됐다. 또 문예특강은 불교와 문화, 한국불교의 이해, 문화와 생활, 문학연수, 불교문예현장 답사여행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된다. 30명 정원의 달마문예대학은 내년 하반기에 중급, 고급과정도 개설해 수요생들의 불교문예활동을 지속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간 문예지를 발간해 수요생들의 문단등단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달마문예대학은 고문에 신경림 시인, 이사장에 종립 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장), 학장에 소설가 김성동 씨를 비롯, 혜봉 스님(천일불교론 저자), 맹란자(수필가) 고희형(시인), 김사인(시인) 씨가 이사 및 교수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의 (02)813-7425 김원우 기자

경기도불교사암련, 결성

수원불교연합회(회장 성관, 수원포교당 주지)는 12월 15일 개솔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경기도불교사암연합회 결성 등 2004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수원불교연합회는 지역불교 활성화 모색 및 공동사업 연구를 위해 경기도 불교사암연합회를 결성기로 하고, 지역 사암련 및 연등축제 활성화를 위해 세미나와 토론회를 2월 초순 개최하기로

남한강 영산재 개최

양평불교사암연합회(회장 화암, 사사 주지)는 12월 26일 법림정사에서 결산총회를 열고, 2004년도 사업계획으로 남한강 영산재와 산사음악회 등을 개최키로 했다. 사암련은 또 합동성지순례, 불우이웃돕기, 여주교도소 교화법회 등의 주요행사계획도 확정했다. 김원우 기자

봉인사 자비수관 수련회

남양주 봉인사(주지 지은)는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지은 스님(전 송광사 강주)의 지도로 지(地), 수(水), 화(火), 풍(風), 공(空)의 오대관법을 통한 위빠사나와 티벳 밀교계통의 자비관법 수행으로 이뤄진 자비수관(慈悲手觀) 수련회를 개최한다. 또 봉인사는 11일부터 16일까지 매일 1시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다도수련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강좌도 마련한다. (031) 574-5585 김원우 기자

금강선원 김지경박사 추모재

서울 금강선원(선원장 혜거)은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김지경 박사 3주기 추모재를 개최한다. 이날 추모재는 월은 스님(동국역경원장)의 법어와 백운 스님(미륵암 주지) 추모사들의 순으로 진행된다. (02) 445-8484 김원우 기자

셋이 모이면 못할 일 없죠

인천 영산정사 최음전·임옥재·송운석 보살

인천시 남구 송의동 수봉산 자락에 자리 잡은 영산정사. 그곳에는 그 흔한 '직책' 하나 없지만 절 불보는 일만은 누구 못지않은 노 보살 세 명이 있다. 바로 최음전(71), 임옥재(64), 송운석(60) 보살이다. 하얀 머리칼을 곱게 빗어 넘긴 최음전 보살. 6년 전부터 영산정사와 인연을 맺은 최보살은 인생의 곡절을 다 겪어내고 부처님의 품에 안겼다. 서른여덟 살이라는, 앞날이 창창한 들뜬 이들을 먼저 보낸 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달래기 위해 부처님을 찾아 온 것이다. "젊을 때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살기 바빠서 그랬는지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랬는지 기회가 닿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자식 먼저 보내고서야 제가 가야 할 길을 찾게 됐죠."

다녔지도 훑히 꿰고 있다. '이런 말에는 누구네 집에 제사가 있고, 누구네 딸은 언제 시집간다더라'는 소식도 송보살의 머리 속에 모두 들어 있다. 요즘 이 세 보살의 진가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새로 주지를 맡게 된 정각 스님이 신도들의 가장 대소사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만든 상조회 활동이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면 도움의 손길 하나,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겪어본 사람은 안다'며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상조회 활동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또 하나, 요즘 세 보살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주지 스



◇ 인천 영산정사의 숨은 일꾼 송운석, 임옥재, 최음전 보살(왼쪽부터).

최음전-자식 여의고 부처님 품에 안겨 임옥재-뛰어난 통솔력으로 신도 화합 송운석-사찰·신도 살림 내 손안에

법명인 진불심으로 더 유명한 임옥재 보살은 7년 전 영산정사에 발을 들여 놓았다. 영산정사에서 통솔력이 뛰어나기로는 임보살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한다. 큰 일이 있을 때면 조용히 나타나 일의 몫을 나누고 진행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1988년부터 영산정사를 지켜온 송운석 보살은 영산정사의 산증인이다. 송보살은 지금의 요사채가 언제 지어졌는지, 동네 아이들 중 누가 영산정사에서 운영하던 유치원을

님의 설법이 있는 일요법회이다. "스님이 너무 쉽고 재미있게 법문을 해 주셔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듣는다"는 것이 여섯 달 동안 빠지지 않고 법회를 들은 보살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지난 달 초에는 주지 스님의 생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기도 한 이들은, 영산정사가 주민들에게 그리고 불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오늘도 법회와 절 일, 신도들 경조사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이수영 기자

추천의 말

정각스님 영산정사 주지
 최음전, 임옥재, 송운석 세 보살님은 저에게 있어 스님과 신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누이처럼 지내는 벗이자 도반입니다. 세 분 모두 불교와 인연을 맺은 사연

한마음으로 가르침 실천

도, 살아가는 모습도 각기 다르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만은 하나입니다. 언제나 말없이 절을 보살피고 틈틈이 불법을 공부하는 이분들이 있기에 우리 영산정사는 언제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금강불교대학 2548년(2004) 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본 대학은 국내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으로서 한국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천태종 종립교육 기관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 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학과	지역(기수)	교과목	교육일시	지원자격	특전	
불교학과	초급과정	1년	신행문, 원시불교, 불교학개론, 불전이해, 불교경전개설	매주 월요일 1교시: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오후 8시 00분 ~ 90분간	·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수료 후 중급반 진학 자격 취득
	중급과정 (서울21기, 부산16기)	1년	한국불교사, 법화경요해, 대승불교사상, 천태지관	매주 화요일 1교시: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오후 8시 00분 ~ 90분간	·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졸업 후 교법사경 진학 자격 취득
교법사과정	서울(11기) 부산(11기)	1년	정토사상, 유마경, 금강경, 포교방법론, 화엄학, 비교종교, 밀교사상, 천태종학, 열반경	매주 수, 목 1교시: 오후 6시 30분 ~ 90분간 2교시: 오후 8시 00분 ~ 90분간	① 본교 중급과정 졸업자 또는 ② 불교전문 교육 2년 과정의 수료자	·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 · 졸업 후 별도 시험 과정을 통하여 종단내 교법사 선발

- 【서울 금강불교대학】**
 서울 교무과 02-576-6401 신촌성릉사 02-336-2052 봉천동명량사 02-889-7272 강동구강사 02-479-4450
 망우동삼봉사 02-496-3839 구로명화사 02-854-0196 분당 대광사 031-715-3000 인천연화사 032-873-0747
 수원용광사 031-255-4105 안양대안사 031-459-3666 성남화성사 031-745-1482 구리금성사 031-563-9364
 평택법정사 031-655-9090
- 【부산 금강불교대학】**
 부산교무과 051-808-0730 울산정광사 052-277-7100 마산삼학사 055-244-6464 대구대성사 053-651-6108
 포항황해사 054-277-3611 김해해성사 055-336-3585

- ◆ 서울 금강불교대학 ◆ 부산 금강불교대학
- ◆ 면접 후 개별통보
- ◆ 서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내 2층 Tel: (02)576-6401~2 FAX: (02)574-1541
 - 양재역 성남방면 7번출구 마을버스 05, 06번 버스 (LG연구소 우면 APT에서 하차)
 - 강남역 6번출구 414번 버스
- ◆ 부산: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131번지 삼광사내 Tel: (051)808-0730, 0713 FAX: (051)819-7654
 - 어린이대공원 인접지에 위치함

- 이재창-금강불교대학학장 원의범-동국대명예교수 김영태-동국대명예교수 리영자-동국대명예교수 권기중-동국대학교수
 서운길-동국대학교수 장충식-동국대학교수 김상현-동국대학교수 이봉춘-동국대학교수 조용길-동국대학교수
 박경준-동국대학교수 김용표-동국대학교수 권탄준-금강대학교수 지창규-동국대학교수 최중석-동국대학교수
 허경구-동국대학교수 김승일-국민대학교수 이동우-동국대학교수 최기표-동국대학교수 정성준-동국대학교수
 최봉수-동국대학교수 오지연-동국대학교수 김은희-동국대학교수